

국제광산업전시회, 한국전자전 등 국내 전시회 이모저모 첨단미래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국내에 다양한 산업전시회들이 개최되었다. 먼저 9월 6일에는 '광 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로 국제광산업전시회가, 국내 전 산업기술분야를 망라한 국내 유일의 기술축제인 대한민국기술대전, 전자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국전자전 등이 다채롭게 열려 다양한 첨단미래기술의 발전상을 제시했다. |취재/박지연 기자



▶ 지난 9월 6일 열렸던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식 광경.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개관식과 개막식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5 국제광산업전시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와 동시 개최, 광산업계 활발한 정보 교환의 장 제공

광주시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전시회인 '2005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지난 9월 6일에서 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광 세기의 창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76개업체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 8개국 52개사가 참가해 총 128개 업체가 240개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행사기간동안 1만1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15개국에서 300여명의 바이어가 내방했으며, 101개 업체가 731억원의 수출상담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전시회로 평가되었다. 전시기간에는 국제 광기술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광기술 및 신제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참가업체 신기술제품 발표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전시기간동안 함께 열렸던 '제5회 국제광기술 컨퍼런



▶세계 최고 수준의 광섬유와 광케이블, 광 부품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FTTH 제품군을 선보인 삼성전자 전시부스.



▶이오테크닉스 전시 부스. 반도체용 펜 타입 레이저 마커와 Wafer Level 칩 Scale Packaging 마커, 글라스 마커 등 다양한 레이저 미싱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UV, Visible, NIR 영역의 레이저 미러 필터, 렌즈 등 광부품을 선보인 람다레이저옵틱스코리아 부스 전경.

스'는 국내외의 광기술 및 시장동향 전문가를 초청하여 광원, 광통신, 광응용기기 및 광정밀, 바이오포토닉스 등 13개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클러스터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는 광주에서 한국 광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업계간 활발한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망해보는 <FTTH 체험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

체 조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 체험관> 등을 설치, 일반인들에게 빛이 응용되는 산업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2006년 전시회는 국제적인 광산업분야 학술단체인 국제광기술자학회(SPIE)와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광통신컨퍼런스(APOC 2006)와 병행 개최함에 따라 전세계 광 관련 업체, 광전문가 및 참관객이 대거 내방할 것으로 보이며 전시회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주최자인 광주시는 “광산업이 광주지역 전략산업이자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및 단체 모두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진정한 마케팅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5 한국 전자전

첨단 IT기기 대거 출시, IT강국·디지털코리아 현주소 확인

아시아 최대 전자행사 가운데 하나인 '2005 한국전자전'이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Advance to the Future)'을 주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한국전자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IT전문전시회로, 18개국 550여 업체가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IT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등 18개국 550개의 IT업체들이 최신기술과 첨단제품으로 열띤 경연을 벌이고 참관객 20만명(해외 바이어 6000명 포함)과 수출상담 실적 22억 달러의 풍성한 실적을 올렸다.

이번 전자전은 첨단 멀티미디어관·정보통신관·산업용기관·전자부품관 등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에서 약 25만점의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IT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 최대 102인치 PDP TV, 모바일 TV, 명함크기의 캠코더, 위성·지상파 DMB폰 등 첨단 IT기기들이 대거 출시돼 IT강국 디지털 코리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상속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또 1억원대 세계 최고가 TV 등이 선보여 화제가 됐으며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맞물려 이어폰의 '화려한 등극'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전자전에서는 이해찬국무총리, 손학규경기도지사와의 이 행사를 주최한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세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한 '2005 한국전자전'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 손학규 경기지사,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 등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102인치 PDP를 선보인 삼성SDI 부스 전경.

계 3대 전시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올해 전시회가 세계최대 전자전으로 발전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갑열 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은 “한국전자전은 IT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준 뜻깊은 행사로서, 수출 확대 및 내수 활성화와 미래 IT산업의 아이디어를 찾는 중요한 기회였고, 전자진흥회는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전자전을 세계 5위안에 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IT전시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전자부품기술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엠텍비전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MV8602’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인 국무



▶'2005 한국전자전'이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Advance to the Future)'을 주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는 위성·지상파 DMB폰 등 첨단 IT기기들이 대거 출시돼 IT강국 디지털 코리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상속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총리상은 파츠닉의 ‘고전압·박형 전도성고분자 커패시터’가 받았으며 필코전자와 크루셀텍 등 8개 업체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자부품 기술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제품은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제품은 지난 1년간 개발된 고부가가치의 신개발 전자부품으로 기존 수입제품을 대체할 경우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과실의 일본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제품이 수상 주역으로 부상, 첨단기술의 저변 확대가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 포커스-e기업

「전자부품 기술대상」 수상작
 엠텍비전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MV8602'

올해 전자부품 기술대상을 받은 엠텍비전(대표·이성민)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MV8602'는 휴대폰의 성능을 진일보하게 만든 핵심 칩이다. 이 제품은 MPEG4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을 매우 빠르게 처리한다.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량을 60% 줄여 첨단 휴대폰의 소비전력 문제를 개선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기존 휴대폰에 비해 동영상 감상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두 배 이상 즐길 수 있다. MP3파일 및 5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MV8602는 3G 휴대폰의 필수 기능인 영상통화를 완벽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엠텍비전은 이미 3G용 베이스밴드 칩과의 연동 기능 테스트를 마쳤다. 기존의

CDMA, GSM, GPRS, EDGE, WCDMA 등 모든 베이스밴드 칩도 지원한다. 특히 엠텍비전은 국내 업체의 특성을 살려 휴대폰 개발에 대한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외산 부품이 주류를 이루던 멀티미디어폰 핵심 칩 시장에 엠텍비전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비결이다. 올해 전체 휴대폰 7억 6,000만개 중 6억 4,800만개가 2.5G나 3G 휴대폰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8억 700만개 중 약 7억 5,000만개, 2007년에는 8억 5,400만개 중 8억 3,700만개가 기대된다. 결국 엠텍비전의 MV8602는 수억개의 시장이 있는 셈이다. 엠텍비전은 MV8602를 올 3분기에 국내외 휴대폰 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연간 3,000만개 이상의 칩을 휴대폰 업체에 공급, 카메라폰 및 멀티미디어폰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고해상력 시대에 아직도 범용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www.prooptics.co.kr



프로답게 생각하고 프로답게 일하는 기업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 3리 347-138
 전화 : (031) 637-0732, 633-1660
 팩스 : (031)-637-0733

연구소장·이학박사 정진호

- 렌즈설계, 광학시스템설계 및 제작
- Vision Inspection 광학계 설계 및 제작
- 초정밀 광학 부품 설계 및 제작
- 업체기술자문 및 위탁(위촉)연구수행
- 노광 광학계 설계 및 제작, 수리
- 서울광학산업(주) 기술영업 대행

당사의 맞춤형렌즈는 귀사의 장비성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